

1. 사물놀이 가입시기

상쇠가 되려면 최소 1년이란 기간동안 큰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큰 행사로는 봄학기에는 Oakland Heritage Night 행사가 있었고 가을학기에는 추석, 쇼케이스, 중국행사 오디션이 있었죠. 행사에 참석하면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리드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점-20/100: 행사당 5 점 배점)

2. 출석률 - 상쇠가 되려면 부득이한 경우 (SAT 시험, 질병, 행사등)를 제외하고는 연습과 행사에 매번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들의 본이 되어야 하니까요. 어쩔수 없이 빠질 경우엔 결석 이유서를 제출하면 더 좋겠죠.
(배점-20/100: 결석 한 번에 4 점 감점)

3. 현재 상쇠의 의견존중 - 현재 상쇠로 있는 에린이와 줄리아에겐 어제 투표에서 투표권이 주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큰 행사때마다 아이들을 리드하고 아이들을 가장 가까워서 관심있게 봐온 두명에게 앞으로 그 역할을 맡아 할 아이들을 투표하는 자리에서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게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배점-20/100: 에린 10, 줄리아 10 - 각 상쇠는 선택한 3 후보에게 10 점씩 부여 (발언권을 주자는 의미하에)/ 선택되지 않은 후보는 각 8 점씩 부여)

4. 원장님의 의견 - 원장님은 곤란해지실까봐 아이들의 투표로 상쇠를 뽑는 방식을 택하신것 같은데 아이들을 계속 지도해오시고 앞으로도 계속 지도해 주실 분으로서 어느정도 선생님의 의견은 수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점-20/100: 선택한 3 후보에게 20 점씩 부여/ 선택되지 않은 후보는 각 16 점씩 부여)

5. 단원들의 투표- 물론 아이들을 이끌어 가야하니까 아이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다른 점들을 배재하고 아이들의 의견으로만 상쇠를 뽑는다는거엔 많은 무리와 부작용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배점-20/100: 득표순으로 점수 가산-예) 최고 득표한 아이 20 점, 그 다음 아이-19 점, 18/그외 후보들은 16 점씩 부여)

*1 번이나 2 번중 한 항목에서 0 배점일 경우 자격 미달 (이런 이유에서 어제 뽑힌 3 명중 2 명은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리스와 우연이는 지난 1년동안의 큰 행사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상쇠에 뽑힌 세아이들중 둘은 아시겠지만 사물놀이 팀에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뽑힌게 정말 아이들이 그아이들이 음악적 소질이 있어서, 통솔력이 있어서, 아니면 우리 나라 문화에 큰 열정을 보여서... 뭐 이런 기준으로 뽑았다기 보다는 친구라서, 아니면 학년이 높아서,... 그런 이유로 뽑았다는 생각 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상쇠를 뽑을때 곧 senior 가 될 자녀를 둔 친분이 있는 부모님들 몇몇이 사물놀이에 아이들을 투표전 가입시키면 그 아이들이 뽑힐 확률이 가장 높아 지겠지요. 미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까지 실력이 아닌 한국에서 처럼 학연, 지연, 혈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게 될까 두렵습니다. 한국 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널리 알리는게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동포로서의 책임이자 권리이겠지만 한국의 악습까지 아이들을 경험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지만 너무 약게 기회를 노리며 살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올해 사물놀이 단원이 늘고 아직 자리를 잡지못한 상황에서 모든일이 일사천리로 완벽하게 진행되는걸 기대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중요한 규정들은 정립되어야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이 사회에 한국전통문화를 알리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중간 시행착오를 통해 규정들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거의 아무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냥 그냥 넘어가고 다음을 기약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틀이 정해져야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상처받는 일, 오해하는 일, 많은 부분을 관용과 이해로 받아 주고 있는 현 사물놀이 단체를 아이의 대학진학만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이 없어지게 (적어지게) 되겠지요. 사물놀이 단체가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아이들이 부모님과 선생님을 더욱 더 신뢰하면서 열심히 아름다운 한국의 소리를 배울 수 있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